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9일차인 10월15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는 불교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참석해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김형주 기자

"만행결사, 행동하는 불교 거듭나자 선언"

지난 겨울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불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중 무문관 정진이었다. 천막에서 난방도 하지 않고 하루 일종식을 하며 정진했던 아홉 스님의 수행담은 많은 이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천막결사에 이어 새롭게 시작된 만행결사는 어떤 의미일까. 10월7일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 10월27일 서울 봉은사까지 500km 거리를 행선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10월15일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만행결사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국불교를 만들어가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월결사 의미·고찰 세미나

고답적 소극적 자세 버리고
활동적인 불교 되는 '출발점'

부처님 순례 가치 다시 살려
순례·탁마, 진정한 구도행으로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상월선원 천막결사와 국난극복자비순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상월결사가 고답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만행결사를 "과거에 안주하는 불교에서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비순례는 한국불교의 변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고, 누구든지 직접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함께 발원하며 결집할 수 있다"며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한국적 수행과 포교에 과감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 수행의 현대적 계승과 출가와 재가의 참여와 공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월결사를 재조명하는 세미나에 참석자들 모습.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스님은 상월결사가 불교 내부와 대사회적 대응의 프레임 전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난극복의 길로서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모색하다'는 주제로 발제한 스님은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교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부대중이 국난극복에 뜻을 모아 나선 만행결사는 부처님 행화(行化)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깨달음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환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님은 "중생의 괴로움을 찾아 보듬어 안고, 중생의 괴로움을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성지 '붓다가야'를 구현해내는 첩경"이라며 "코로나 시대 고통받는 중생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선언과 그 선언으로부터 비롯된 행보가 불교인들에게 지침이 돼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 주제발표에서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갖는 의미를 고찰했다. 자현스님은 "고려시대 지눌스님의 수선사 결사가 한적한 곳을 찾아 진행된 수행 중심적인 것과 달리 천막결사는 도심 속에서 포교와 수행이라는 종교의 두 날개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봤다. 산사 중심의 한국불교가 도심포교의 새로운 모델과 모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만행결사는 부처님 열반에 대한 문헌에서 강조한 순례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인도에서 하루 30km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며 "걷기문화가 확대되는 요즘, 순례가 포교수단으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상월선원 결사의 시작은 10여년 한국불교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살펴본 회주 자승스님이 불교중흥을 고민하다가 천막결사를 했고, 이번엔 만행결사를 기획하면서 비롯됐다"며 "한국불교 석학들이 상월결사 의미, 한국불교가 짊어져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잘 나열해준 학자들과 대구에서부터 대중을 이끌어준 회주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상월선원은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끝까지 함께 만행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순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송일호 동국대 불자교수회장,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안양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이병두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문경=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지금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 이 땅에 불국정토 장엄하는 길"

대구 출발 열흘째 문경 닿아
200km 이상 만행하며 순례
사회각계 일일참가자 잇따라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의 발원을 담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10월15일 10일차를 맞았다. 10월7일 팔공총림 동화사를 출발해 대구, 달성, 칠곡, 구미, 의성을 지나, 문경 농암면에 이르러 212km를 걸었다.

10월13일 오전3시 텐트와 짐정리를 마친 결사대중들은 순례단 실무를 맡은 지객 원명스님 안내에 따라 둥글게 원을 만들었다. 80여 대중은 간절한 목소리로 이날 순례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만행결사 발원문'을 합송했다. "우리 사부대중은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자비순례의 길을 걷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인류 정신 새벽을 여시었듯이, 오늘 우리는 국난극복의 새로운 새벽을 열어, 국민이 기쁘고 행복한 보살행원의 길을 가겠나이다…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고난과 고행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신생명을 우리 육신생명으로 이어받아, 이 땅에 불국정토를 장엄하는 길임을 믿겠나이다."

오전3시50분 본격적인 순례가 시작됐다. 컴컴한 새벽 묵언 행선으로 걷는 사부대중의 행렬에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우산재 등을 차례로 지나 약 6시간 반 동안 23km를 걸어 외서면에 도착했다.

가파른 고갯길인 우산재를 넘어가는 동안 비지땀이 쉴새없이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힘에 부쳐 잘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자 짐을 대신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무사히 고갯길을 넘었다. 오전11시께 상주 우산캠핑장에 다다르자 30여 명의 지역 불자들이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순례단을 맞았다. 순례단을 위한 특별한 법석도 펼쳐졌다. 봉은국악합주단과 가수 우순실, 자전거탄풍경의 송봉주, 박시환 등으로 꾸려진 공연단의 흥겨운 공연 한마당이 진행됐다.

순례 8일차를 맞은 10월14일도 각지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입승 소임을 맡았던 진각스님(밀양 표충사 주지)은 첫날 순례에 이어 이날도 상주 외서면에서 문경 농암리까지 총 26km를 약 7시간 동안 걸었다.

상월선원에서 별좌 소임을 맡아 밖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아홉 스님을 외호한 효연스님도 방문했다. 현재 군복무 중인 스님은 휴가를 내고 이날 하루 순례길에 올랐다. 효연스님은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순례 중인 대중들 모습이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결사대중인 스노보드 알파인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 어머니 이제연 씨와 동생 정유림 씨도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고된 순례길을 묵묵히 걸었다.

김무성 전 국회의원도 순례단에 합류해 잠시 걸었다. 김 전 의원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국난극복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순례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건강하게 순례하길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월14일 고유환 문경시장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사부대중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튿날인 10월15일 권영진 대구시장도 순례단을 찾아왔다. 권 시장은 자승스님을 만나 10월27일 서울 봉은사에서 회향하는 날까지 자비순례 사부대중 모두가 무탈하게 행선을 마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구미·의성=홍다영 기자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의 발원을 담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동참 사부대중은 대구, 달성, 칠곡, 구미, 의성을 지나, 문경 농암면에 이르러 212km를 걸었다. 김형주 기자

2021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공고

우리 종단은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개요

1) 선발대상
① 국내 및 해외 장학승 : 국내 및 해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 승려
②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 승려
2) 선발인원 : 약간 명
3) 자격요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헌·종법 및 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선발분야 : 불교학 및 제학문 분야
• 계율(율장, 청규) • 한국불교사(근현대) • 응용불교(종교법무·행정·경영 등)
• 불교문화(음악, 영상, 미술, 건축, 의례 등) • 불교심리학(심리, 명상 등)
5) 장학승 선발 신청 시 유의점
① 국내·외 장학승 선발 후,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입학허가서 혹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함(1년이 경과하면 선발 취소)
② 실제 진학대학이 신청 당시 진학희망 대학과 다르더라도 동급 수준의 대학일 경우, 선발을 인정함
③ 전공분야가 변경될 경우 선발 취소함
6) 장학금 지급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 시까지(4년 이내) 지급하며, 논문학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구비서류

구분	국내 및 해외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 양식) ④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입학허가서 제출) 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 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⑥ 서약서(소정양식) 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서약서(소정양식) 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 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 다운로드)

▌선발일정

1)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1일(수) ~ 11월 11일(수)
2)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초 예정 (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3) 장학금 증서수여식 : 개별통보
4) 장학금 지급 : 개별통보

▌가산점 부여

1) 각급 승가고시 수석(최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은 자
2)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 수석 졸업자로 표창받은 자
3) 교육원에서 주최한 학인대회 수상자
4) 교육원이 운영(또는 위탁)하는 교육기관(국제불교영어학과, 한국불교융합학과) 졸업자
5) 기본교육기관 교육교역자를 역임한 자

▌장학금 지급 중지 및 환수

1)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수학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자퇴 또는 퇴학을 당한 경우
3)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수학하는 교육(연구)기관이나 전공분야를 변경하는 경우
4) 장학승으로 선발된 자가 교육(연구)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 선발된 조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수학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종단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가 확정된 경우
7) 장학승이 수학기간 내 졸업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8) 입학자격이 허위의 사실로 판명된 경우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승 자격을 박탈하며, 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함

▌접수 및 문의

1)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 2020년 11월 11일 우편소인까지 인정되며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문의 : 교육원 불학연구소 02-2011-1818

불기2564(2020)년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종 호